

‘광주대단지의 후예’… 시민과 함께 쌓아올린 30년

이재명은 누구인가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 2022년 1월, 상대원시장 연설

소년공의 삶은 노동자 권리 향상에 관심을 갖게 했고, 대학 때 받은 20만원의 생활비는 기본소득 정책의 단초가 됐다. 유치원·어린이집 과일 무상 제공 정책은 어린시절 상한 과일의 성한 부분만 찾아 먹던 기억에서 비롯됐다. 교복을 입어보지 못한 한(恨)은 비싼 교복값 부담을 덜어주는 ‘무상교복’ 정책으로 승화됐다.

4일 취임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다. 그가 행정가로서 행한 정책은 위의 연설 문구 그대로 ‘참혹한 삶’이 투영됐다. ‘광주 대단지의 후예’인 이재명 대통령의 일대기를 <메트로경제신문>이 살펴봤다.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 이곳은 화전민촌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 곳에서 1963년 10월23일(음력) 5남 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대학을 중퇴한 아버지는 노름에 빠져 몇평 되지도 않는 밭을 날리고, 돈을 벌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났다. 그 사이 생계는 어머니가 감당했고, 가족은 가난한 시절을 보내야 했다.

1976년 2월, 이 대통령은 국민학교(現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온 가족이 성남의 빈민촌 상대원시장 월셋집으로 이사해 단칸방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성남은 8·10 성남 민권운동(혹은 광주대단지 항쟁)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민권운동의 결과로 상대원공단이 조성됐고, 이 대통령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학교 대신 생계 전선에 뛰어들며 ‘광주 대단지의 후예’가 됐다. 이 대통령은 6년간 소년공으로 살았고, 팔이 굵은 장애를 얻는 등 고초를 겪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현실을 이겨냈다. 어머니는 늘 그에게 “점바치(점쟁이의 경상도 방언)가 그러는데, 내가 너 때문에 호강한다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이같은 암시 덕인지 힘든 환경에서도 자기 자신을 놓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검정고시를 통해 중·고졸 자격을 얻은 이 대통령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깨닫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학 진학을 결정했다. 피나는 공부 끝에 이 대통령은 전액 장학금·월 생활비 20만원 지원 혜택을 받고 중앙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20만원은 그가 공장에서 받던 월급보다 4~5배 가량 많았다. 그리고 대학 입학식 날, 이 대통령은 아무도 입지 않는 ‘대학 교복’을 입고 갔다. 중·고교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던 한을 풀기 위해…

군부독재 시절 대학을 다니던 이 대통령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게 됐다. 이를 계기로 사회 내 거대한 부조리를 깨닫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시민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 대통령은 사법연수원(18기)에서 2년간 연수를 받았다. 연수가 끝날 무렵, 이 대통령은 판·검사 임용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군사정권의 주구(走狗)가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생계도 걱정됐다.

이 와중에 운명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타났다. 당시 노동·인권 분야 변호사로 유명했던 노 전 대통령은 사법연수생들을 향해 “변호사는 뭘 해도 굶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이 대통령은 ‘판·검사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구나’하는 깨달음을 얻고 1989년 과감히 변호사 개업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처음엔 노동단체 간부를 무료변론하고, 시민단체에서 법률상담 봉사를 했다. 그러자 ‘이재명 변호사’는 성남에서 유명해졌다. 활동



①

“

어머니 손에 이끌려 6년간 소년공, 산재 아픔도 중·고교 땀 못 입은 교복, 대학 교복으로 한 풀어 사법시험 합격 후 판검사 대신 인권변호사 택해

성남시민모임 창립, 풀뿌리 운동에 자리잡아 성남시립의료원 무산에 통곡… 정치 입문 결심 성남시장·도지사 거쳐, 당대표로 ‘내란 극복’



②



③



④



⑤



⑥

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② 어린 시절 형제들과 함께하는 이재명 대통령(제일 오른쪽)의 모습. ③ 오른쪽은 대학 입학식에 어머니 구호명 여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이 대통령은 대학 교복을 입고 있다. ④ 2000년 분당 부당용도변경 반대집회 참석 당시. ⑤ 법률사무소 운영 당시 사진. ⑥ 지난해 해병대원 특검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의 모습. 목을 보면 지난해 1월 부산에서 피습당해 생긴 상처가 선명하다.

/손진영기자 son@, 민주당 선대위

분야가 넓어지던 이 대통령은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하기 위해 1995년 ‘성남시민모임(현 성남 참여자치시민연대)’를 창립했다.

이 대통령의 시민운동 시절 가장 유명한 사건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과 ‘성남시립의료원 조례안 보류 사태’였다. 특히 ‘성남시립의료원’은 이 대통령이 정계 입문을 결심한 계기다. 성남의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 운동을 이끌던 이 대통령은 성남시민 20만명의 서명을 얻어내,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토론도 하지 않고 47초 만에 이 조례안 심사를 무기한 보류시켰다. 이 대통령은 억울함에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했다. 설상가상으로 이 대통령은 시의회를 참관하던 시민단체가 격한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당했다. 경찰을 피해 잠시 몸을 피한 성남 주민주교회 지하실에서, 이 대통령은 시민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시장이 돼 성남시립의료원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2005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에 입당한 이 대통령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2008년 총선(경기 성남분당갑)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51.2%의 득표율로 민선 5기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시장 취임과 함께 ‘모라토리엄(채무 지급유예)’을 선언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는 부정부패·예산낭비·세금탈루를 없애려는 ‘극악 처방’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아낀 이 대통령은 3년 만에 재정 정상화를 달성한다. 무상교복·무상급식·공공산후조리원 정책, 청년배당(기본소득 정책)도 성남시장 시절에 나왔다.

기초자치단체장에 불과했던 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도약한 계기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다. 정치인 최초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주장해 인지도가 올라간 뒤 2017년 19대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3위에 그쳤다.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 대통령은 특유의 행정력을 뽐냈다. 재직 당시 가장 유명한 장면들은 계곡 정비사업을 위해 상인과 토론하는 모습, 그리고 코로나19 당시 신천지 본부에 직접 들어닥치는 모습일 것이다.

이후 이 대통령은 2021년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후보로 선출됐다. 그러나 2022년 3월 대선에서 단 0.7%포인트(p)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이재명 의원’은 같은해 8월 전당대회에서 최종 77.77%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권을 쥐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당과 함께 윤석열 정권 동안 고난을 겪었고, 이때부터 지지자들이 그에게 ‘일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당을 하나로 만든 이 대통령은 지난해 부산에서 피습을 당하고, 총선 기간 내내 재판에 출석했음에도 22대 총선에서 대승을 이뤄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민주당 최초로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다.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 대통령은 즉시 국회로 향하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을 향해 ‘국회로 모여서, 계엄해제를 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패닉에 빠졌던 시민들은 국회로 달려와 비상계엄 해제에 큰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내란 극복’의 중심에 선 이 대통령은 지난 4월29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89.77%의 압도적 지지로 대선 후보가 되고, 선두를 달리는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제 ‘광주 대단지의 후예’ 이 대통령이 그의 삶을 지표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지, 국민들은 기대를 품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